

1위  
ABC 공인 유료 발행부수  
4년 연속 1위

# 스포츠동아

2021년 10월 21일 목요일  
www.sportsdonga.com

국내 유일 LPGA투어 'BMW 챔피언십' 오늘 티오프



한국인 통산 200승 고지 점령과 세계랭킹 1위 탈환에 나선 고진영 등 참가선수들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개막을 앞두고 19일 열린 공식 포토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박성현, 대니엘 강(미국), 정하나, 고진영, 한나 그린(호주·왼쪽부터). 사진제공 | BMW 코리아

## 고진영 '세 토끼 사냥' GO!

세계 1위 탈환·한국인 200승·연속 60대 타수 도전 디펜딩챔프 장하나 "컨디션 굿...좋은 성적 자신감" 준우승 대니엘 강 "아버지 고향 부산서 우승할 것"

국내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정규대회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총상금 200만 달러·23억6000만 원)이 21일부터 나흘간 부산 기장군에 있는 LPGA 인터내셔널 부산(파72)에서 열린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가 로컬 파트너로 함께하는 이번 대회에는 LPGA 투어 소속 50명, KLPGA 투어 상금랭킹 상위 30명과 추천선수 4명 등 총 84명이 참가해 우승상금 30만 달러(3억5000만 원)를 놓고 열띤 경쟁을 펼친다.

이번 대회에서 세계랭킹 1위 탈환과 LPGA 투어 60대 타수 최다 연속 라운드 신기록, 한국인 통산 200승 고지 등등 세 마리 토끼 사냥에 나선 고진영(26)은 20일 비대면 화상 인터뷰로 진행된 공식 기자회견에서 "우승을 해서 200승 주인공이 되고, 1위도 탈환한다면 더없이 좋은 시나리오가 되겠지만 골프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며 욕심과 함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음도 내비쳤다. 1라운드에서 60대 타수를 치면 15라운드 연속 60대 타수를 기록하며 '전설'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을 넘어 LPGA 투어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되는 고진영은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면 15라운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라운드, 30라운드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다른 자신감도 드러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이 대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나선 2019년 우승자 장하나(29)는 "디펜딩 챔피언이라 부담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챔피언만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한다"며 "무릎 등에 가벼운 부상이 있어 아쉽지만 컨디션과 경기력은 좋은 편이다. 긍정적으로 플레이를 해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년 전 이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교포 대니엘 강(미국)은 "내 인생에서 부산에서만큼은 정말 우승하고 싶다"며 아버지 고향인 부산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 우승이 '인생 목표'라고 강조했다. 도쿄올림픽에서 뉴질랜드에 동메달을 안겼던 교포 리디아 고는 "9월 말 하나금융 챔피언십 이후 줄곧 한국에 머물렀다"며 "한동안 좋지 않았는데 올림픽 전부터 다행히 컨디션이 나아졌다. 이번 대회에서도 일관성있는 플레이를 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 400홈런의 전설 '최정 & 이승엽' 최 "아직도 실감 안나요" 이 "500홈런도 부탁해"

SSG 최정이 걸어온 전설의 길		
날짜(경기)	홈런	비고
2005. 5. 21(인천 현대전)	1호	
2011. 9. 30(인천 삼성전)	100호	역대 57호
2016. 6. 1(대전 한화전)	200호	역대 23호
2018. 7. 8(인천 한화전)	300호	역대 11호
2020. 6. 18(인천 KT전)	341호	우타자 최다 신기록
2021. 4. 4(인천 롯데전)	369호	SSG 창단 1호
2021. 10. 19(광주 KIA전)	400호	역대 2호·우타자 최초

SSG 최정은 19일 광주 KIA전에서 개인통산 400홈런 고지를 밟았다. 은퇴한 이승엽(467개)과 함께 KBO리그에 2명뿐인 400홈런 타자가 된 그는 이제 500홈런을 정조준한다. 최정은 "당연히 욕심난다"면서도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포츠동아DB

최정 "기사 보고 '대단한 기록이구나' 열심히 하면 500홈런 뒤따라올 것" 이승엽 "한국도 500홈런 기록 나와야 부상 없이 최선 다하면 고지 오를 것"



이승엽

팀의 패배로 아쉽게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다. 20일 인천 NC 다이노스전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최정은 "생각지도 못한 기록이다. 영광스럽다. '한 시즌 한 시즌 좋은 결과 내자'는 목표만 세웠는데, 그게 누적돼 달성된 기록"이라고 밝혔다. 이어 "400개라는 숫자가 실감은 안 난다. 전날(19일) 경기 후 버스에서 기사를 보며 '내가 대단한 기록을 세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최정은 2019시즌에 앞서 SK(현 SSG)와 6년 계약을 맺었다. 올 시즌이 반환전. 남은 3년 동안 대기록을 향해 걸어가길 바란다. 최정도 500홈런에 대해 "당연히 욕심난다. 하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야구를 할 수는 없다. 이승엽 선배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엽과 최정. 한국야구 역사상 누구도 남기지 못한 발자취를 선명하게 새긴 이들이다. 이들은 슈퍼스타의 품격까지도 담았다. 이승엽은 현역 시절 극적인 홈런을 때리고도 고개를 떨군 채 베이스를 재빠르게 돌았다. 이승엽의 동자만 본다면 뜬공 아웃으로 착각할 법했다. 이승엽은 매년 "상대 선수들에 대한 예의"라고 설명해왔다. 최정도 마찬가지다. 최정은 "습관이 다. 지금은 자기 어쩔하는 시대다보니 옛날 마인드일 수도 있지만... 그게 매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소년장사는 이제 선수생활 반환점을 지났다. 더 이상 소년이라는 타이틀이 어울리지 않지만, 장사다운 힘은 그대로다. 여기에 연륜이 쌓이며 품격까지 더해졌다. 실력과 품격을 두루 갖춘 홈런왕. 한국야구 홈런 역사는 이제 최정을 통해야 설명이 가능하다.

인천 | 최혁재 기자 ing17@donga.com



출중한 기량으로 리그를 지배하는 선수는 스타다. 하지만 '슈퍼스타'가 되기 위해선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스타성은 물론 인성도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야구 역사상 가장 홈런을 많이 때린 우타자 최정(34·SSG 랜더스)은 슈퍼스타다. 최정은 19일 광주 KIA 타이거즈전에서 개인통산 400홈런을 달성했다. 3-4로 끌려가던 4회초 2사 후 주자 없는 가운데 풀카운트에서 KIA 선발 보 다카하시의 속구를 받아쳐 담장을 넘겼다. 프로 17년차 최정의 400호 홈런이었다. 그에 앞서 KBO리그에서 400홈런 고지를 밟은 이는 이승엽(은퇴·467개)뿐이었다. 최정은 우타자 최초의 대기록을 완성했다.

CJ CHEILJEDANG

##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

•식품유형 : 과채음료 •원산지 : 양배추적립농축액(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증진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고 편안한 속이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실었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